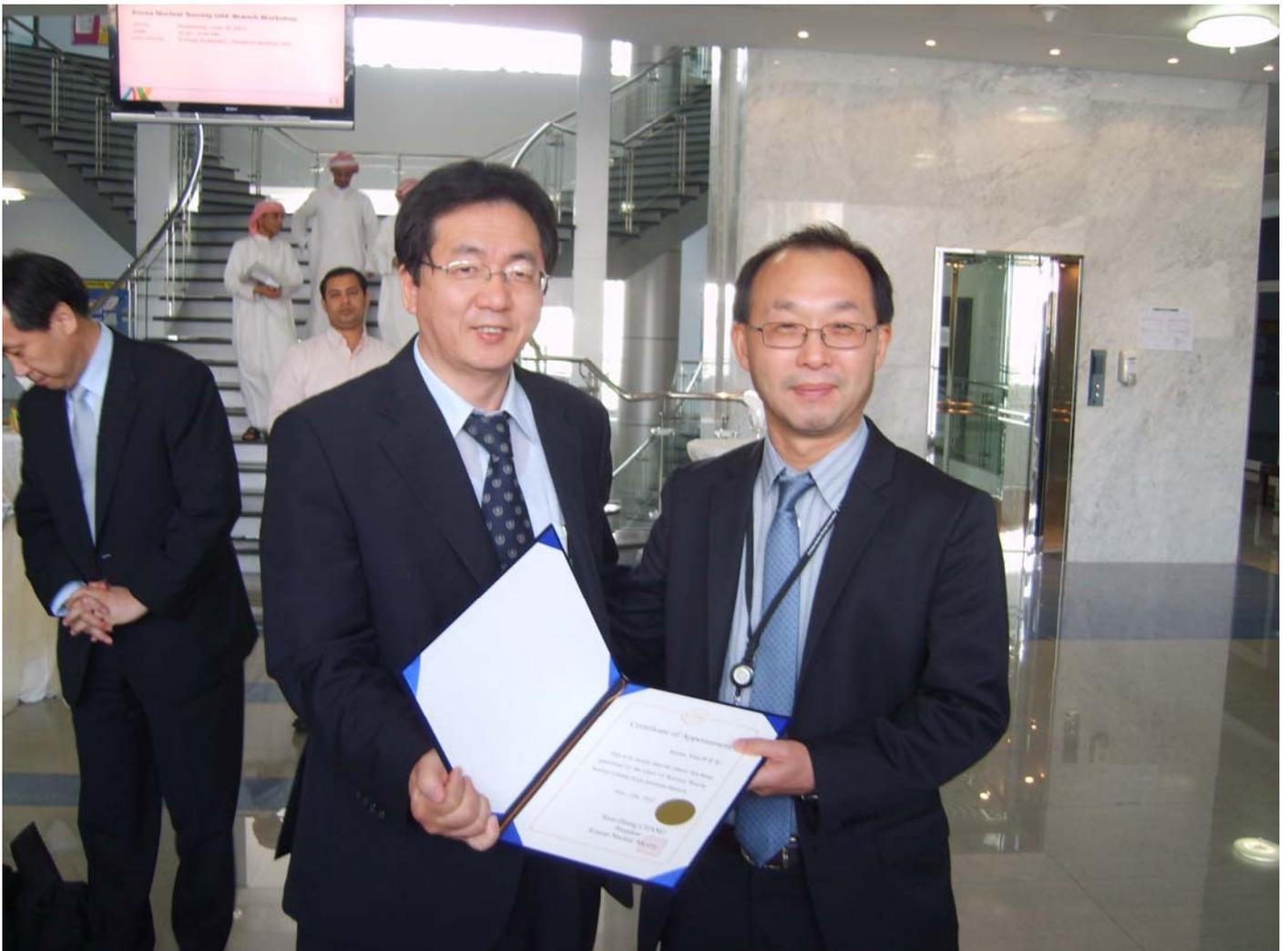


UAE 지부 출범식 및 워크숍 개최

6 월 13 일, 칼리파대학에서 우리 학회 UAE 지부 출범식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유경영 UAE 지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Tod Laursen 칼리파 대학 총장의 환영사와 장순흥 학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지부장에는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의 유경영 박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The history and contribution of KNS"(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istory of Nuclear in Korea(Nuclear Silk road)"(김병구 (KU/GNEII))등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50 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UAE 지부는 향후 UAE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 및 상호 교류 증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지부 출범식 및 세미나 개최

6 월 25 일, 미국 원자력학회 기간 중 한국원자력학회 미국 지부 출범식이 개최되었다(미국 시카고 Hyatt Regency 호텔, Burnham Room).

출범식은 장순흥 학회장의 개회사와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 박노벽 대사의 환영사와 장순흥 학회장이 "Korean Nuclear Energy perspective & Korean Nuclear Society"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미국 초대지부장으로는 Savannah River National Laboratory 의 Senior Fellow Engineer 이시영 박사가 임명되었으며 출범식에는 약 65 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원(외국 회원 포함)의 활발한 학술활동 및 상호 교류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GABI사와 상호협력협약 체결

6월 25일, 미국 시카고 하얏트호텔에서 2011년 5월에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Washington D.C.에 설립된 GABI(Global America Business Institute, President: Florence Lowe-Lee)사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요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원자력학회와 상호 업무협약 갱신

6 월 27 일, 미국 시카고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원자력학회와 미국 원자력학회(American Nuclear Society)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 추진 및 상호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갱신하였다.

본 서명식에는 장순흥 한국원자력학회장, Michael L. Corradini(ANS 현 수석부회장, 차기 회장 당선자), Eric P. Loewen(ANS 현 회장), Robert Fine(ANS Executive Director)이 참석하였으며 양 학회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국원자력학회 대표단(회장: 장순흥), 빌 게이츠 미국 테라파워사(TerraPower) 회장과 회동

2012년 8월 16일 오후 4시(미국 시애틀 현지시간) 한국원자력학회 대표단(회장: 장순흥)과 빌 게이츠 미국 테라파워사 설립자겸 회장이 지속적인 기술 및 업무협력 추진을 위하여 회동하였다.

빌 게이츠 회장 및 참석자들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인류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으며, 한국원자력 기술의 높은 경쟁력을 논의하였고, 원자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제 4 세대 원전과 같은 기술혁신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테라파워사는 진행파원자로(TWR)라는 고성능 소듐고속로 (SFR)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테라파워사는 제 4 세대 SFR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도 교류 및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일차적인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TWR 기술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테라파워사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핀란드 TVO사와 STUK 방문 및 한국원자력학회 IAEA. 유럽지부 창립식 개최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장순흥 학회장은 4박 5일 일정으로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다. 장순흥 학회장은 주핀란드 대사관을 방문하여 올킬루오토 4 호기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라우마에서는 지자체장에게 11월에 개최예정인 기장포럼 행사를 홍보하고 적극 초청하였다.

또한 핀란드 원자력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핀란드에서 대표적인 원전 운영회사인 TVO사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규제기관(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STUK)을 방문하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우리 학회의 세 번째 해외지부인 IAEA 및 유럽지부 창립식에 참석하였으며, 본 창립식에서 장순흥 학회장은 유럽에 파견된 원자력계 인력들이 IAEA 및 유럽지부를 통해 국내 원자력계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외지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